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력사 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데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58년 4월 30일

대성산유원지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성산에 길을 닦는 일은 거의다 되여가고있습니다. 그러나 길이나 하나 닦아놓고서는 유원지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성산유원지를 인민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꾸리며 근로자들을 혁명전통과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대성산은 자랑스럽고도 오랜 력사를 가진곳입니다. 대성산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묘지가 있고 력사유적들도 많습니다. 대성산에는 고구려시기의 고분만 하여도 천여개나 있는데 그가운데는 벽화가 있는것도 있으며 옛날에 쌓았던 산성자리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고적들은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말하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가는곳마다에서 수많은 고적들을 닥치는대로 마사버렸으며 귀중한 력사유물들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러한 민족적원쑤, 계급적원쑤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때문에 침략자가 얼마나 흉악하고 파렴치하다는것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력사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서도 인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빛나는 문화전통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주의정신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제가 마스고 간 고적들을 다 복구하며 아직 남아있는 고적들을 발굴하여 복구정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력사유적들을 다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하여 우리 민족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게 한다면 대성산은 근로자들의 좋은 문화휴식터로 될뿐아니라 인민들을 민족적긍지와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장소로도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대성산유원지 건설공사를 하는 기회에 여기에 있는 고적들을 발굴하고 복구정비하는 사업도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를 한다고 하여 절대로 력사유적을 마사버려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 고적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할 건설공사를 더디게 하거나 하지않아서도 안될것입니다. 고적이 있는곳에 공사를 할 때에는 먼저 고적발굴대 같은것을 조직하여가지고 공사에 앞서 고적들을 발굴하여 고적도 살리고 건설공사도 지장없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원지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고 공사를 옳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유적발굴사업을 앞세워야 할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로 전문적인 고적발굴대를 조직하여 과학원에 소속시켜가지고 고적발굴사업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부문일군들은 과학자 및 대학학생들과 널리 협의하여 빨리 대성산유원지건설총설계도를 만들어 건설에 달라붙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력사유적을 복구하는 사업은 반드시 복구에 필요한 과학적자료들을 충분히 조사연구한 기초우에서 하여야 합니다. 유적이 없던곳에다 무엇을 새로 만들어놓아도 안되며 본래있던 유적을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복구하여서도 안됩니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먼저 대성산에 있는 고분들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성산에 있는 고분들을 다 조사하고 발굴하여야 하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을 몇개 골라서 원상대로 복구하여 인민들에게 실물로 보여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덤에는 잔디도 입히고 그 변두리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록음이 우거지게 하며

무덤들사이로는 거닐수 있는 길도 내고 자그마한 정자도 지어 근로자들과 학생들이 견학하고 관람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분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목장을 빨리 다른곳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안학궁터도 복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안학궁터에 있는 부락은 궁터밖으로 옮기도록 하고 궁터를 모두 발굴하여 고적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곳에 쌓았던 산성의 성돌들이 아직 남아있는것만큼 종합대학의 력사학부 학생들로써 조사발굴사업을 하여 산성벽도 일부 구간을 복구하고 성문도 원상대로 복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장수봉에 있던 정각도 다시 본래모습대로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성산성안에 있었다고 하는 옛못도 매우 귀중한 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옛못도 다 찾아내여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유원지 같은데 가면 물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성산에 있는 샘터를 많이 찾아내여 물원천을 넉넉히 확보하는것은 이곳에 놀러 오는 근로자들의 편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성산 길닦이를 할 때에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유물들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성산에 박물관을 짓고 이 일대에서 발굴되는 귀중한 유물들을 전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성산에 유원지를 잘 꾸리려면 집도 적지 않게 지어야 할것입니다. 대성산에 짓는 집은 유적들을 모두 찾아내여 연구한 다음 우리 나라 고대건축기술의 오랜 전통을 살려 고적지대에 어울리게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원지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고대건축기술의 우수한 전통도 배울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물론 건설자들의 힘만으로는 힘들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업도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성산유원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종합대학 학생들이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성산유원지를 잘 꾸리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적도 옛모습대로 복구해야 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새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성산유원지 건설은 앞으로도 계속 종합대학이 맡아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성산유원지건설공사는 종합대학 학생들에게 가장 알맞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다른 유원지건설공사와는 달리 력사유물을 발굴해야 하고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사업도 하고 지질조사사업도

해야 하는만큼 종합적인 과학지식이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부문의 과학을 연구하는 종합대학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잘해나갈수 없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물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사업을 력사학부 학생동무들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력사유적을 발굴하는 사업은 마땅히 동무들이 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연구한 기초우에서 안학궁터는 어떻게 복구하고 고분과 산성, 성문, 정자들은 어떻게 복구할것인가 하는 계획도 동무들이 세워야 합니다. 지금 몇사람밖에 안되는 고고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사업을 다 해낼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성산유적을 연구하여 론문도쓰고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자료들도 써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상우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 풍부히 하니 좋고 유원지건설사업에도 이바지하니 또한 좋습니다.

우리는 대성산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복구하며 여기에 새로 동물원과 식물원도 건설하여 세상에 자랑할만한 유원지를 꾸려놓아야 하겠습니다.